

경영정보학연구
제5권 2호
1995년 12월

조직적 특성에 따른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의 선택에 관한 연구

한 재 민¹⁾ 문 태 수²⁾ 박 희 찬³⁾

An Investigation on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Influences on Information Systems Issues in the Korean Firms

This paper suggests a contingent perspective for analyzing information systems issues of the Korean firms. The contingent perspective includes such corporate characteristics as industry, organizational size, strategy, and value-added application function.

This research surveyed 119 corporations in manufacturing, banking, distribution, and construction industries. Among those samples 104 data of corporate IS managers turned out to be statistically valid. As a result, those issues are ranked as the most urgent and important IS issues: strategic IS planning, system integration, application of database, process standardization, and network planning and implementation.

Furthermore, factor analysis says that thirty issues to be surveyed are to be grouped into seven factors such as IS planning, user/education, database, applications of IT, system management, distributed computing technology, and network applications. It also found through Pearson correlation and ANOVA that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highly influences the IS issues the corporations face.

-
- 1)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2)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 3)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I. 서 론

오늘날 정보기술의 빠른 발전과 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의 생존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목표달성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시스템에 대한 주요 관리 이슈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은 매우 그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Benjamin et al., 1985].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현대의 조직에서 정보시스템 관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졌다. 따라서 이전의 정보시스템 관리자보다는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여러가지 환경을 고려하여 기업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경쟁우위를 획득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부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그리고 도입해야할 정보기술을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McFarlan & McKenney, 1983; Miller & Toulouse, 1986]. 이와 같이 정보시스템 조직에서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나 고려중인 정보기술을 정보시스템의 '주요 관리 이슈'라고 하며, 현재까지 많은 연구에서 이와 비슷한 정의로 사용되어 왔다 [서길수, 1992; 정인근 & 유지선, 1991; 이재광, 1993; 임선규, 1993; 한경수, 1992; 홍은석, 1993; Brancheau & Wetherbe, 1987; Dickson et al., 1984; Hartog & Herbert, 1986; Niederman et al., 1991; Watson &

Brancheau, 1991].

본 연구는 정보시스템 관리자들이 주요 관리 이슈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기업의 최고경영자나 정보시스템 관리자에게 조직의 업종, 규모, 전략, 그리고, 응용업무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주요 관리 이슈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 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 네 가지의 세부적인 연구과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의 업종에 따라서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의 선택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의 선택에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기업의 전략유형에 따라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의 선택에는 차이가 있는가?

넷째, 정보기술을 응용하는 기능에 따라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의 선택에는 차이가 있는가?

II. IS 주요관리이슈에 대한 기존 연구

지금까지 정보시스템 주요 관리 이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그때마다 용어가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기도 했다. 미네소타 대학의 Wetherbe & Brancheau[1986]는 주요 관리 이슈(Key Issues)를 '향후 3년 내지 5년에 정보시스템 관리자들이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문제들(Issues)'이라고 정의하였으며, Hartog & Herbert[1986]는 '향후 2년간에 걸쳐 정보

시스템 관리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관리항목'이라고 하였고, 국내의 연구에서 정인근 & 유지선[1991]은 '향후 3-5년 내에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당면하게 될 주요 문제들'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에서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정보시스템 주요 관리 이슈'를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정보시스템과 관련한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경쟁우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앞으로 2-3년 동안 관심을 가져야 할 관리상의 과제 또는 정보기술'이라고 정의하였다.

지금까지 정보시스템 관리자들이 정보기술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정보시스템 주요 관리 이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단순히 이슈간의 중요도에 의한 순위 비교, 업종간 순위 비교, 국가간 순위 비교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어떤 이슈가 왜 다른 이슈보다 중요하게 생각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정보시스템의 주요관리이슈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요약하면, 주요관리이슈의 중요도(importance)에 관한 연구와 주요관리이슈의 지각(perception)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의 중요도에 대한 연구로는 Dickson et al.[1984], Niederman et al.[1991], Watson[1991], 서길수[1992], 정인근 & 유지선[1991], 이재광[1993] 등을 들 수 있다.

Dickson et al.[1984]은 1983년 미네소타 대학의 MIS 연구센터에 속해 있는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미국 기업의 정보시스템 관리 이슈를 조사한 다음, 리스트를 작성한 후, 델파이법을 사용하여 54명의 정보시스템 관리자와 4명의 정보시스템 학자를 대상으로 하여 중요도에 따라 주요관리이슈의 순서를 결정하였다. 또한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 전문가들에게 다시 보내주고 결과에 대한 그들의 의견 일치도를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주로 기업의 정보시스템 중점 육성 분야의 선정과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정보시스템 연구의 초점과 방향을 찾는 데 목적이 있었다.

Niederman et al.[1991]은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여 새로운 정보시스템 이슈를 선정하고 정보시스템 실무자들에게 세 번의 설문을 통하여 중요도에 따른 순위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델파이법을 이용하여 응답자들 사이의 의견 일치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존의 연구[Dickson et al, 1984; Brancheau & Wetherbe, 1987]와 비교하여 주요 항목의 순위 변화 추이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은 각 이슈에 대한 질문시 순위가 아닌 10점 척도로서 응답하도록 하였고, 설문에 대한 무응답자에게 델파이 결과를 피드백(feedback)함으로써 응답율을 높였다. 이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주요관리이슈를 이슈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기업경영 관련항목, 기술적 하부구조 관련항목, 내부 효과성 관련항목, 기술 및 응용관련항목 등으로 범주화하였다는 것이다.

Watson[1991]은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싱가포르, 미국 등지에서 최근에 조사한 정보시스템 관리자들의 주요 관심사항에 관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정보시스템 관리자들의 주요 관심사항 중 어느 것이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이고 어느 것이 국내적 또는 국지적인 문제인가를 구별하였다. 또한 각 나라의 정보시스템 관리자들이 어떤 사항을 중요한 것으로 지각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Watson은 정보시스템 관리자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문화적인 요인을 들고 있다. 문화적 요인의 세부 내용으로는 권력간의 거리, 불확실성의 회피, 개인주의, 남성 우월성 등을 들고 있다. Watson은 또한 조직의 정보시스템 개발단계와 조직 규모의 차이가 주요 관리 이슈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의 연구로는 서길수[1992]가 국내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델파이 방법으로 정보시스템 관리에 있어서 10개의 핵심과제분야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 책임자 집단과 사용자 집단을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제조업과의 비교도 아울러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사용자와 책임자간의 핵심과제분야는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체와의 비교에서는 금융기관에 비해 정보시스템 전략계획의 수립이나 정보시스템의 실행에 필요한 관리제도의 수립 등이 더욱 강조되고 있었다. 특히, 미국 정보관리학회의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국내의 경우 최고경영층의 지원이나 경쟁적 우위확보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사용, 정확한 정보자료에 입각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이 미국과는 다

른 핵심과제분야로 선정되었다.

또한 정인근 & 유지선[1991]은 국내 기업의 과장급 이상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일반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 기업의 정보기술과 관련된 당면과제를 조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983년과 1986년 미국에서 실시된 Brancheau & Wetherbe[1987]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들이 사용하였던 설문 내용을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20개의 주요 문제를 선택한 후 이를 재평가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재광[1993]은 국내 기업의 정보시스템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1991년에 실시된 미국의 Niederman et al.[1991]의 연구를 기초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은 다른 연구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가 조직내 어느 계층의 누구에 의해서 선택되어 활용되고 있는지를 밝히려고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요구는 전산부서의 책임자에 의해서 제기되어 채택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최고경영자와 임원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한편,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의 지각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는 Rockart[1982], Watson[1990], 임선규[1993] 등을 들 수 있다.

Rockart[1982]는 정보시스템 관리자의 주요성공요소(CSF)를 도출하기 위하여 실제로 9개 기업의 정보시스템 관리자와 면담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근거로 80년대에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직면하게 될 중요한 사항과 역할을

도출하였고, 또한 정보시스템 관리자들이 성공 요소에 대해 관리자마다 다르게 인식하는 이유를 규명하였다. Rockart는 정보시스템 관리자들의 지각이 기업마다 개인마다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조직의 개발단계, 정보시스템 기능에 대한 조직의 경험정도, 기업의 구성요소인 인간, 조직, 재무적 상황,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인식하는 자신의 역할과 영역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Watson[1990]은 정보시스템 관리이슈가 또다른 관리이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러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새로운 연구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주요관리이슈에 대한 정보시스템 관리자의 지각이 조직 내외부로부터 그들이 받는 신호(signal)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Watson의 모델은 상황변수인 환경, 조직, 정보시스템 부서 등의 요인과 정보시스템 관리자의 개인적 특성이 정보시스템 관리자의 탐색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탐색행위는 주요관리이슈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설문조사결과, 정보시스템 관리자의 탐색행위는 주요 관리 이슈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시스템 관리자와 최고경영자의 관계도 정보시스템 관리자의 주요 관리 이슈의 지각에는 유의할 만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보시스템 관리자와 최고경영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되고 물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략적 계획의 수립'의 중요성이 뚜렷이 높게 나타나, 주요 관리 이슈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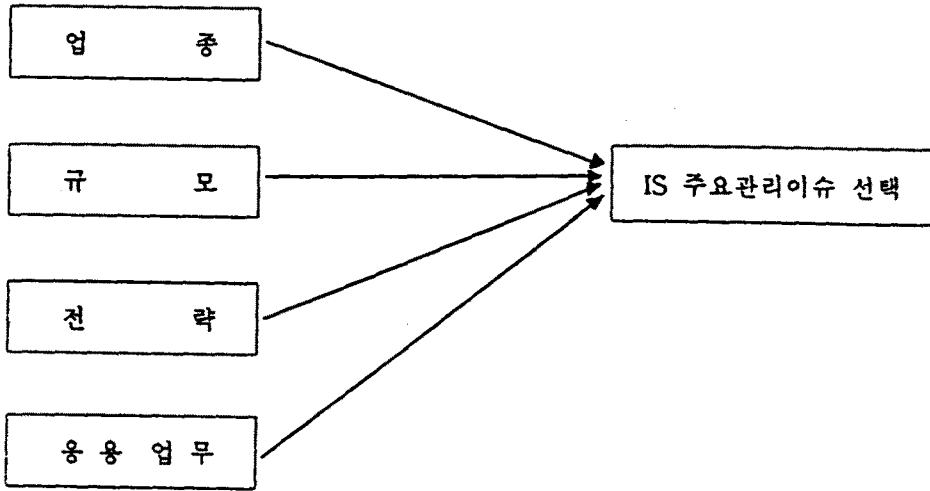
국내의 연구로는 임선규[1993]가 Watson의 연구[1990]를 기초로 하여 정보시스템 관리자들이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정보시스템 관리자들의 탐색행위는 신문이나 잡지가 가장 많은 정보원천으로 활용되었고, 정보탐색행위와 주요관리이슈간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고경영층과의 접근성과 주요관리이슈와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보고계층의 수가 작을수록 정보시스템 전략계획 수립의 이슈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정보시스템 관리자의 지위가 높을수록 정보시스템 전략계획의 중요성이 높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모델 및 연구가설

1. 연구모델

기존의 연구는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들에 대한 순위 작성, 업종간의 순위비교, 다른 국가와의 순위 비교, 그리고 일반관리자와 정보시스템 관리자의 관점 비교 등과 같은 단순한 순위비교에만 그침으로써 왜 그러한 이슈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고, 조직적 특성에 따라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가 왜 선택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의 정보



<그림 1> 연구모델

시스템 관리자들의 관점에서 조직적 특성에 따라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가 어떻게 선택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황변수로 조직의 업종, 규모, 전략, 그리고 응용업무를 이용하여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델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의 선택에 관한 상황변수(contingency factor)는 조직의 업종, 규모, 전략, 그리고 정보기술의 응용업무 등이다.

먼저, 조직의 산업적 특성인 업종(industry)은 업무활동의 특성을 설명해 주는 요인으로, 정보나 정보기술의 응용에 대한 요구가 각기 다르다.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서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에 대하여 전략적 정보시스템의 응용사례가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Ives & Learmonth, 1984; Reich & Benbasat, 1990; Jarvenpaa & Ives, 1990]. 이것은 산업의 특성에 따라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가 다를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에 대한 관심이나 중요도도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정보기술의 전략적 활용에 대한 산업수준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Cash et al. [1992]은 산업간에 사용되는 정보기술의 차이는 각 산업의 정보시스템 이슈에 대한 관심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즉, 서비스산업에 있는 기업은 그들의 업무활동에 있어서 정보시스템의 활용에 더욱 의존할 것이며, 그로 인해 정보시스템의 기획과 같은 이슈에 더욱 관심을 둘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조업에 있는 기업은 그들의 조업활동에 대한 정보기술의 활용에 관심을 두어 거래처리나 조업활동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관리 이슈에 관심을 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현재 사례연구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업종간의 정보시스템 관리 이슈에 대한 차이를 가설로 설정하였다.

가설 1: 조직의 업종에 따라서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의 선택은 달라질 것이다.

조직이론에 있어서 기업은 규모가 커질수록 그 규모에 따른 조직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Galbraith, 1973]. Delone[1981], Lehman[1985] 등과 같은 연구자들은 조직 규모가 정보시스템의 복잡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McFarlan et al.[1983]은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복잡성(complexity)은 증가하며, 정보시스템 기능의 통합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기획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진다고 하였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기획과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도 입증된 것이다[Martin, 1989; Cash et al., 1992]. 이와 같이 조직의 규모는 정보시스템의 주요 관리 이슈와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의 규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주요 관리 이슈는 달리 선택될 수 있다.

가설 2: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의 선택은 달라질 것이다.

조직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하여 정보를 처리하며, 정보처리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설계한다[Tushman &

Nadler, 1978; Daft & Lengel, 1986]. Porter[1985]는 기본적인 기업의 전략으로 원가우위전략, 차별화전략, 집중화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원가우위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조직들은 상대적으로 경영환경이 안정적이므로 외부환경변화에 대한 정보의 획득 및 가공과 관련된 이슈보다는 기업의 내부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기술의 이슈에 더욱 관심을 두게 될 것이다. 반면에 차별화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조직들은 새로운 시장이나 제품으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환경변화에 대한 정보획득 및 처리와 관련된 정보기술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집중화전략을 추진하는 조직은 시장이나 제품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보시스템 이슈의 범주가 다른 전략을 추구하는 조직보다는 한정되게 나타날 것이다. 이와 같이 조직의 전략유형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주요 관리 이슈에 대한 선택은 차이가 날 것이다.

가설 3: 조직의 경영전략에 따라서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의 선택은 달라질 것이다.

조직의 과업과 관련하여 Porter[1985]는 가치사슬(value chain)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는 조직의 업무활동에는 기본적 활동(primary activity)과 지원활동(support activity)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기본적 활동과 지원활동의 가치사슬에 의해 조직의 성과가 창출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업무의

특성에 따라 기본적인 활동을 위한 정보기술과 지원활동을 위한 정보기술의 이슈는 서로 다를 것이다. 즉, 생산업무에 적용되는 정보기술은 주로 원료의 투입과 자재의 관리, 그리고 조업 과정에 필요한 정보기술이 응용될 것이다. 또한, 판매활동과 적용되는 정보기술의 경우에는 고객과의 거래처리나 외상매출금, 그리고 영업 점관리 등과 같은 정보시스템의 유형이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조직의 업무기능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주요 관리 이슈에 대한 선택은 차이가 날 것이다.

가설 4: 조직의 응용업무에 따라서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의 선택은 달라질 것이다.

IV. 연구조사설계

1.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독립변수는 기업의 업종, 규모, 전략, 그리고 응용업무 등이다. 먼저 기업이 속한 업종에 따라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 연구하게 된다. 업종은 Rockart[1982], Watson[1990] 등의 연구에서 제기된 중요한 상황변수로서, 시장 점유율, 업계에서의 지위 등을 설명해주는 거시적인 조직변수이다[김인수, 1991].

조직 규모는 Delone[1981], Lehman[1985] 등의 연구에서 다루어졌던 상황변수

로, 현재까지의 조직규모와 정보시스템의 특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Raymond, 1990; Gremillion, 1984; Ein-dor & Segev, 1982]에서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만 파악되었다. 하지만 McFarlan et al.[1983]의 연구에서는 조직의 규모가 커짐으로써 정보시스템의 복잡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분석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직 규모의 차이로 인해 정보시스템의 관리이슈에 대한 관심도 다르다는 것을 분석하게 된다.

전략특성은 기업의 전략적 유형을 설명해주는 변수로, 기업의 독특한 경쟁전략을 의미한다. 경쟁전략이란 기업이 속한 산업 내에서 유리한 경쟁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정책을 말한다. 따라서 경쟁전략의 목표는 산업 내에서 경쟁적 상황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쟁전략유형은 Porter[1985]의 세가지 본원적 전략(원가우위전략, 차별화전략, 집중화전략)을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본원적 전략이외에 두 가지 이상의 전략을 결합한 복합전략을 다른 하나의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복합전략을 추진하는 조직은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나의 전략유형을 지원하는 정보기술의 이슈 선택보다는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유형의 정보기술의 이슈 선택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네 가지의 전략유형에 대해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의 선택에 차이가 있는 지를 파악하게 된다.

응용업무특성은 기업에서 수행하는 업무활동 중 정보기술의 지원을 받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이 기업의 여러가지 업무활동 중에서 어떤 부분을 특히 중점적으로 지원하느냐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Porter[1985]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이용하여 기업의 활동을 본원적 활동과 이를 지원해주는 지원 활동으로 나누고, 본원적 활동에는 물류투입활동, 생산활동, 물류산출활동, 마케팅 및 판매, 서비스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지원 활동은, 획득(구매)활동, 기술개발활동, 인적자원관리활동, 기업하부구조활동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정보시스템이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에 따라 정보시스템 관리자들의 주요 관리이슈에 대한 선택정도를 파악하게 된다.

2.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가 되는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는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상위에 랭크되었던 이슈들과 최근 국내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슈들을 대상으로 30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Hartog & Herbert[1986]는 그들의 연구에서 주요관리이슈를 계획/관리, 통신, 사용자, 자료 등의 4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주요관리이슈에 대한 공통적인 요인을 분석하였다. Niederman & Brancheau & Wetherbe[1991]는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에 대한 연

구를 통해 관리이슈들을 기업의 경영관련항목, 기술적 하부구조 관련항목, 내부효과성 관련항목, 기술 및 응용 관련항목 등으로 분류하였다.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에 대한 공통요인 연구는 조직으로 하여금 필요한 관리요인을 파악하여 관리함으로써 조직적인 대응능력을 높여 주고 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능력을 강화시켜준다.

본 연구에서도 30개의 주요관리이슈에 대하여 공통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보고, 조직적인 특성요인들에 따라 각 요인이 어떻게 선택되고 있는 지에 대해 분석하게 된다.

3. 분석도구설계

본 연구의 분석수준(unit of analysis)은 기업수준으로, 하나의 기업에서 하나의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왜냐하면, 조직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구모델에서 제시한 조직적 특성과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의 선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지(questionnaire)를 이용한 조사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설문에는 국내 기업의 정보시스템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여 향후 2-3년 동안에 해당 기업이 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당면하게 될 주요관리이슈와 해당 기업의 업종, 규모, 전략, 그리고 응용업무에 관한 설문을 작성하였다.

설문서는 모두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

며 기업의 업종에 대해 1개 문항, 규모에 대해 2개 문항, 전략특성에 대해 1개 문항, 기능 특성에 대해 9개 문항, 주요 관리 이슈에 대해 30개 문항 등 모두 4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기업의 업종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업종을 직접 쓰도록 하였고, 기업의 규모는 종업원 수와 매출액을 물어 보았다. 그리고, 기업의 전략 유형에 대해서는 네 가지의 전략유형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여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기업의 응용업무에 대해서는 기업의 가치활동을 모두 9개(물류투입, 생산, 물류산출, 판매, 서비스, 인적자원, 기술개발, 정보기술, 기업 하부구조 등)로 제시하여 정보시스템이 활용되는 모든 기능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30개의 주요 관리 이슈는 응답기업의 정보시스템 관리자의 관점에서 향후 2-3년 동안 관심을 갖게 될 항목을 “매우 중요하지 않음”에서 “매우 중요한”까지 7점 척도에 의해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으면 기록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기업 선정은 1994년 간행된 ‘한국기업총람’을 이용하여 250개의 기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본 연구에 응답한 기업은 모두 119개 기업으로, 설문에 대한 응답율은 47.6%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높은 회수율을 기록한 이유는 사전에 전화로 전산부서의 유무를 파악하고, 전산부서 최고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의 응답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직접 방문에 의해 설문서를 배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한 후에 모든 수

신자에게 설문발송 사실을 알리고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회답후에는 연구결과를 다시 전달하기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응답자가 제시한 주요관리 이슈의 중요도에 관한 평균 값을 계산하여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해 순위(rank)를 매기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응답내용의 타당성(validity)과 신뢰도(reliability)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방법으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Cronbach-Alpha Test를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요관리이슈를 공통적인 요인에 의해 집단으로 분류하도록 하며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을 판단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Nunally, 1978]. 본 연구에서는 조직적인 특성에 따라 주요관리이슈가 선택되는 것을 분석하는 연구이므로, 각 특성에 따라 주요관리이슈가 어떻게 선택되는 지에 대해 분석하고, 조직적 특성에 따라 주요관리이슈에 대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와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다.

V. 자료 분석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는 응답한 119개의 설문중에서 모든 항목에 똑같은 답을 하거나 자료로서 부적합한 것을 제외한 104부를 최종적인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104개의

표본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표 1>, <표 2>,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의 업종별 분포는 <표 1>과 같이 금융업, 유통 및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으로 구분되었으며 기타는 연구기관이나 정부기관 등이다. 이 중에서 제조업이 36.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직위별 분포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전산실 책임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응답자의 대부분이 전산부서의 실무자들인 대리나 과장(65%)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계층의 응답자들은 해당 기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를 직접 수행하거나 주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응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타로 분류된 직위는 평사원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다.

응답자의 회사의 매출액규모별 분포는 <표 3>과 같다. 응답자 회사의 매출액 규모가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1조원 이상이 되는 응답자 회사가 31%나 되었다.

<표 1> 응답자의 업종별 분포

구 분	빈 도 수	구성비율(%)
금 용 업	23	22.1
유통, 도소매업	14	13.5
제 조 업	38	36.5
건 설 업	14	13.5
기 타	15	14.4
합 계	104	100.0

<표 2> 응답자의 직위별 분포

직 위	빈 도 수	구성비율(%)
대 리	30	28.8
과 장	36	34.6
차 장	10	9.6
부 장	10	9.6
이 사 급	3	2.9
기 타	15	14.4
합 계	104	100.0

<표 3> 매출액 규모별 분포 (단위: 억원)

매출액규모	빈 도 수	구성비율(%)
- 500	17	16.8
500 - 1000	10	9.9
1000 - 2000	13	12.9
2000 - 5000	21	20.8
5000 - 1 조	9	8.9
1 조 이상	31	30.7
합 계	104	100.0

2. 중요도에 의한 주요관리이슈의 순위

중요도의 평균값에 의해 앞으로 2-3년 후에 중요하게 될 이슈의 순위와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통계분석결과를 볼 때, 주요관리이슈간 평균값의 차이가 다른 연구에 비해 크지 않은 것은 다른 연구에서는 응답자에게 순위를 정하도록 하여 그 평균값을 가지고 순위를 결정하는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에게 7점 척도에 의한 중요도를 표시하도록 하여 이를 평균한 값이기 때문이다. 표준

편차가 크지 않은 것도 같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표 4>를 살펴보면, 정보시스템의 전략적 계획수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시스템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효과적 사용, 업무의 표준화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통신과 관련하여 통신 시스템의 계획과 실행, 사내 통신망의 구축, 외부 통신망의 활용 등도 역시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정보시스템의 전략적 활용(SIS)과 최종사용자 전산(EUC)의 촉진 및 관리 그리고 정보화 마인드의 확산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최종사용자 전산(EUC)의 촉진과 정보화 마인드의 확산은 9, 10위에 포진되어 향후 많은 기업의 전산부서 관리자들에게 관심의 대상과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업의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는 정보기술전략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기업의 하부구조를 강화시키는 통신망 및 시스템의 통합으로 연결되어 전산자원의 활용도를 한 차원 높이는 방향으로 정보시스템 관리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전략적 계획, 시스템 통합, 표준화, 통신망 등 기업의 기본적인 정보자원에 대한 관리체계 및 전략화 방안은 국내 기업들의 인식과 관심이 전반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정보시스템 관리자들에게는 전략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요인분석에 의한 집단화

본 연구에서는 Varimax에 의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이용하여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를 분류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 아이겐 값(Eigen value)이 1.0 이상인 요인(Factor)이 9개가 나왔으나 9개 요인으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7개 요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게 분류가 용이하여 이를 채택하였다. <표 5>는 Varimax에 의한 요인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7개 요인으로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들을 분류하였을 때의 설명력이 63.3%로써 Cut-off Value 60%를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Factor 1에서 Factor 7까지 각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은 Factor 1이 3.498, Factor 2가 3.404, Factor 3이 3.017, Factor 4가 2.880, Factor 5가 2.491, Factor 6이 1.995, Factor 7이 1.699이다.

요인분석에 의해 묶여진 7개 Factor들에 대해서는 각각 공통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계획, 사용자/교육, 데이터베이스, 정보기술의 활용, 시스템 관리, 분산처리기술, 통신망 활용 등으로 명칭을 부여하였으며, 공통적인 요소가 없는 한 개의 이슈는 분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6>은 요인분석에 의한 집단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actor 1에 관련된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들은 주로 정보시스템의 기획과 성과 관련된 이슈들로서 구체적으로는 정보시스템의 전략적 계획수립, 통신시스템의 계획과 실행, 업무의

<표 4> 주요관리이슈의 중요도에 의한 순위

순 위	주 요 관 리 이 슈	평 균	표준편차
1	정보시스템의 전략적 계획수립	6.11	1.21
2	시스템 통합	5.85	1.38
3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효과적 사용	5.83	1.29
4	업무의 표준화	5.81	1.34
5	통신시스템의 계획과 실행	5.79	1.22
6	사내 통신망의 구축(LAN, E-mail)	5.67	1.20
7	외부 통신망의 활용(VAN, EDI)	5.47	1.31
8	정보시스템의 전략적 활용(SIS)	5.45	1.41
9	최종사용자 전산(EUC)의 촉진 및 관리	5.44	1.45
10	정보화 마인드 확산	5.41	1.48
11	정보시스템의 생산성 관리	5.36	1.11
12	정보 보안과 통제의 향상	5.36	1.34
13	시스템 복구 및 백업체제 구축	5.33	1.24
14	사무자동화의 계획수립과 이행 및 관리	5.31	1.28
15	임원정보시스템(EIS)의 도입	5.30	1.42
16	클라이언트/서버 아키텍처의 구축	5.28	1.39
17	정보시스템 요원의 선발과 교육	5.24	1.26
18	정보기술에 대한 조직의 학습 및 사용의 촉진	5.22	1.16
19	관계형 데이터베이스(DBMS)의 도입	5.21	1.26
20	업무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5.21	1.59
21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5.15	1.20
22	의사결정지원시스템(DSS)의 개발과 이행	5.15	1.32
23	종합정보통신망(ISDN)의 도입	5.12	1.52
24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관리	4.98	1.03
25	다운사이징 또는 라이트사이징	4.89	1.54
26	open system	4.87	1.49
27	멀티미디어 기술의 활용	4.85	1.62
28	컴퓨터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개발기술 개발	4.75	1.29
29	기존 프로그램의 수정 및 재개발	4.60	1.30
30	인공지능 및 전문가 시스템(ES)의 도입	4.26	1.67

표준화, 컴퓨터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개발기술 개발(CASE),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관리,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시스템 통합 등이다.

Factor 2로 분류된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들은 주로 정보기술을 응용한 시스템의 도입 또는 활용과 관련이 있는 이슈들로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DSS)의 개발과 이행, 임원정보시스템(EIS)의 도입, 정보시스템의 전략적 활용(SIS), 업무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등이다.

Factor 3로 분류된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들은 주로 조직의 사용자나 구성원에 대한 교육이나 학습과 관련된 이슈들로서 최종사용자 전산(EUC)의 촉진 및 관리, 정보시스템의 생산성 관리, 정보화 마인드 확산, 정보시스템 요원의 선발과 교육, 정보기술에 대한 조직의 학습 및 사용의 촉진 등이다.

Factor 4로 분류된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들은 주로 통신망 활용과 관련된 이슈들로서 멀티미디어 기술의 활용, 외부 통신망의 활용(VAN, EDI), 종합정보통신망(ISDN)의 도입, 정보보안과 통제에 향상, 개방형시스템(open system) 등이다.

Factor 5로 분류된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들은 주로 분산처리를 위한 기술 또는 기반 기술과 관련된 이슈들로서 다운사이징 또는 라이트사이징, 클라이언트/서버 아키텍처의 구축, 사내 통신망의 구축(LAN, E-mail) 등이다.

Factor 6로 분류된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들은 주로 기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과 시스템 비상관리 등의 시스템 관리와 관련된 이슈들로서 사무자동화의 계획 수립과 이행 및 관리, 시스템 복구 및 백업체제 구축, 기존 프로그램의 수정 및 재개발 등이다.

Factor 7로 분류된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들은 주로 조직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이슈들로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효과적 사용, 관계형 데이터베이스(DBMS)의 도입 등이다.

요인분석을 통해 분류가 안된 정보시스템 주요 이슈는 인공지능 및 전문가 시스템(ES)의 도입이었다. 인공지능 및 전문가시스템의 도입은 '정보시스템의 활용'에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인공지능과 전문가시스템의 두 가지 이슈가 혼재되어 응답자가 혼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표 5> 요인분석 결과

이슈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FACTOR 6	FACTOR 7
1	0.61040	0.32486	0.04011	0.14505	-0.07564	-0.04920	0.17070
5	0.60800	-0.01479	0.16448	0.27841	0.22404	0.00466	-0.17781
4	0.59211	-0.04120	0.06385	-0.07013	-0.07851	0.25936	0.32560
28	0.65498	0.10165	0.21062	0.05490	0.11340	0.06703	0.18156
24	0.74088	0.14534	0.26012	0.02037	0.21193	0.13168	-0.03823

((표 5) 계속)

21	<u>0.72050</u>	0.06510	0.24479	0.18764	0.10778	0.10344	-0.00349
2	<u>0.43256</u>	0.13552	0.34590	0.35777	0.07319	0.33620	-0.36351
9	0.13855	0.19412	<u>0.61126</u>	0.00867	0.36842	0.35106	-0.14714
11	0.22839	0.04376	<u>0.64570</u>	0.00983	0.07471	0.07872	0.06801
10	0.24103	0.27541	<u>0.56680</u>	0.03546	-0.01963	0.26461	0.22950
17	0.26184	0.21134	<u>0.59876</u>	0.05735	0.01442	0.12358	0.16331
18	0.12105	-0.09096	<u>0.87837</u>	0.08697	0.00513	-0.04507	0.02549
3	0.34218	0.06650	0.18094	0.46001	0.01022	0.16865	<u>0.60180</u>
19	0.12370	0.04908	0.27141	0.12241	0.25826	0.12696	<u>0.66360</u>
22	0.06919	<u>0.82222</u>	0.13654	0.07651	-0.03850	0.14141	-0.10319
15	0.24453	<u>0.79103</u>	0.10826	0.01107	0.08737	0.03558	0.03916
8	0.09206	<u>0.71726</u>	-0.02071	0.31697	0.10354	0.08543	0.01832
20	0.01492	<u>0.60068</u>	0.03010	0.05314	0.26291	0.15795	0.14695
14	0.32779	0.20415	0.12690	-0.23715	0.10425	<u>0.52184</u>	0.12116
13	0.27273	0.08020	0.10130	0.22896	0.08952	<u>0.67794</u>	0.35666
29	-0.03764	0.34422	0.22051	0.20923	-0.09815	<u>0.60663</u>	-0.14992
25	0.08140	0.38025	0.16385	0.16784	<u>0.72380</u>	-0.12341	-0.03798
16	0.10120	0.10536	0.00193	0.06341	<u>0.84343</u>	-0.04648	0.07684
6	0.12936	-0.10143	0.06713	0.23848	<u>0.64128</u>	0.21234	0.15312
27	0.16045	0.20908	0.00190	<u>0.65449</u>	0.16591	-0.19643	0.23806
7	0.16149	-0.10370	0.03586	<u>0.61894</u>	0.43774	0.31071	-0.05390
23	0.11730	0.24709	-0.00987	<u>0.74868</u>	0.21355	0.24413	0.05901
12	0.06949	0.52817	0.16831	<u>0.61149</u>	-0.02716	0.01853	-0.05832
26	0.10693	0.16631	0.38002	<u>0.41519</u>	0.33993	-0.06095	0.24038
30	0.06318	0.36814	0.18064	0.31880	-0.01853	0.32223	0.14470
설명 분산	3.498008	3.404040	3.017412	2.879643	2.490934	1.995113	1.699415

<표 6> 요인분석에 의한 집단화 결과

분 류 집 단	주 요 관 리 이 슈	
정보시스템 계획	1	정보시스템의 전략적 계획수립
	5	통신시스템의 계획과 실행
	4	업무의 표준화
	28	컴퓨터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개발기술 개발
	24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관리
	21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2	시스템 통합
사용자/교육	9	최종사용자 전산(EUC)의 촉진 및 관리
	11	정보시스템의 생산성 관리
	10	정보화 마인드 확산
	17	정보시스템 요원의 선발과 교육
	18	정보기술에 대한 조직의 학습 및 사용의 촉진
데이터 베이스	.3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효과적 사용
	19	관계형 데이터베이스(DBMS)의 도입
정보기술의 활용	22	의사결정지원시스템(DSS)의 개발과 이행
	15	임원정보시스템(EIS)의 도입
	8	정보시스템의 전략적 활용(SIS)
	20	업무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시스템 관리	14	사무자동화의 계획수립과 이행 및 관리
	13	시스템 복구 및 백업체제 구축
	29	기존 프로그램의 수정 및 재개발
분산처리	25	다운사이징 또는 라이트사이징
	16	클라이언트/서버 아키텍처의 구축
	6	사내 통신망의 구축(LAN, E-mail)
통신망 활용	27	멀티미디어 기술의 활용
	7	외부 통신망의 활용(VAN, EDI)
	23	종합정보통신망(ISDN)의 도입
	12	정보 보안과 통제의 향상
	26	open system
분류안됨	30	인공지능 및 전문가 시스템(ES)의 도입

* 주요관리이슈의 번호는 <표 4>에서 제시된 번호를 의미함.

4.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주요관리이슈에 대해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7개의 요인에 대한 신뢰도계수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시스템 기획(ISPLAN)이 0.671900, 사용자/교육(USERED)이 0.690157, DB 활용(DBUSE)이 0.382599, 정보기술활용(ITUSE)이 0.661108, 시스템관리(SYSMGT)가 0.344539, 분산처리기술(DECENT)이 0.583276, 네트워크활용(NETWORK)이 0.691520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신뢰도계수의 최저치(cutoff value)가 0.6인 것을 감안하여[Nunally, 1978],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계수가 낮게 나타난 DB활용과 시스템관리를 분석에서 제외한 5개의 요인만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산처리기술의 경우에는

신뢰도계수가 0.6미만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가 0.02에 불과하여 연구변수로 포함시켰다 [Lederer & Sethi, 1991; Premkumar & King, 1992].

<표 8>은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 요인들간의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표를 살펴보면, 모든 주요관리이슈 요인들이 유의한 수준($P < 0.001$)에서 서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 조직의 업종과 IS 주요관리이슈에 관한 가설(H1) 검증

조직의 업종에 따라 정보시스템 관리 이슈의 선택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업종을 조사한 결과, 금융업에 23개 기업, 유통(도소매)업에 14개 기업, 제조업에 38개 기업, 그리고 건설업에 14개 기업 등으로 분류되었다. 그리하여,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각 업종에 소속된 응답자들의 정보시스템 주요관리 이슈에 대한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표 7> 신뢰성 분석결과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	Mean	Std Dev	Cronbach-Alpha
정보시스템 기획(ISPLAN)	5.5000000	0.7991365	0.671900
사용자/교육(USERED)	5.3153846	0.8890673	0.690157
DB활용(DBUSE)	5.3028846	1.0621883	0.382599
정보기술활용(ITUSE)	5.0721154	1.0501231	0.661108
시스템관리(SYSMGT)	5.5128205	0.8462406	0.344539
분산처리(DECENT)	4.9679487	0.8831629	0.583276
네트워크활용(NETWORK)	5.1089744	1.0494179	0.691520

<표 8>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 요인들간의 상관관계분석 *

	ISPLAN	USERED	ITUSE	DECENT	NETWORK
ISPLAN	1.00000				
USERED	0.55862	1.00000			
ITUSE	0.60602	0.50731	1.00000		
DECENT	0.55656	0.59167	0.50151	1.00000	
NETWORK	0.61625	0.56686	0.55744	0.48489	1.00000

* $P < 0.001$

<표 9> 업종에 따른 IS 이슈 요인들의 차이 검증

IS이슈 요인	금융업 (n=23)	유통업 (n=14)	제조업 (n=38)	건설업 (n=14)	F 값 (유의수준)
ISPLAN	5.54	5.27	5.57	5.61	0.59 (0.6210)
USERED	5.40	5.06	5.44	5.34	0.68 (0.5673)
ITUSE	5.26	4.91	4.90	5.05	0.58 (0.6326)
DECENT	5.23	4.86	4.95	5.02	0.68 (0.5685)
NETWORK	5.21	5.01	5.02	5.14	0.25 (0.8626)

* Pillai's Trace(F-value: 0.6589, Sig.=0.8233)

업종에 따른 각 분류집단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표 9>에 제시되어 있는데, 금융업에서는 정보기술 활용, 분산처리, 그리고 통신망의 활용 등의 요인에 대해서 타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제조업에서는 사용자/교육에 관한 요인이 타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건설업에서는 정보시스템 계획에 관한 요인이 타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평균값에 의한 차이 검증을 수행한 결과, 업종간에는 정보시스템의 주요관리 이슈들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의 업종에 따라 정보시스

템 관리 이슈의 선택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가적인 연구로, 서비스업과 제조업간의 정보기술 활용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Ives & Learmonth, 1984; Reich & Benbasat, 1990; Jarvenpaa & Ives, 1990]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보았다. 즉,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정보시스템 관리이슈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t-test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위의 분산분석과 마찬가지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 조직의 규모와 IS 주요관리이슈에 관한 가설(H2) 검증

조사대상의 조직규모는 종업원의 수를 1000명 이하, 1000-3000명, 3000명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각 분류집단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주로 1000-3000명으로 분류된 중간규모의 집단에서 정보시스템 기획이나 사용자/교육, 그리고 정보기술의 활용에 관한 요인에 있어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3000명 이상의 대규모 조직에서는 분산처리와 네트워크 활용에 관한 요인에 있어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1000명 이하의 중소규모 조직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정보시스템의 관리 요인에 대한 중요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조직규모에 따른 주요관리이슈의 선택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값에 의한 집단간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용자/교육과 분산처리에 관한 정보시스템 관리 이슈들에 대해서는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정보시스템 기획과 정보기술의 활용에 관한 요인에 대해서는 1000명 이하의 조직과 3000명이상의 조직에 대해서는 각각 $P < 0.10$, $P < 0.05$ 수준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트워크 활용에 관한 정보시스템 이슈에 대해서는 1000명 이하의 조직과 1000명이상의 조직에 대해 유의한 수준($P < 0.05$)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의 규모에 따라 정보시스

템 관리 이슈의 선택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특히, 정보시스템의 기획, 정보기술의 활용, 그리고 네트워크 활용 등에 관한 정보시스템 이슈들은 조직의 규모에 따라 이슈의 중요도가 명확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 결과는 곧,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정보시스템의 기획이나 정보기술의 활용 그리고 네트워크 활용 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7. 조직의 전략유형과 IS 주요관리이슈에 관한 가설(H3) 검증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전략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의 전략을 원가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 그리고 복합전략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조직의 전략유형에 따라 원가우위전략에 6개 기업, 차별화전략에 17개 기업, 집중화전략에 23개 기업, 그리고 복합전략에 48개 기업 등으로 분류되었다. 그리하여,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각 전략유형에 따른 집단간의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복합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주요관리이슈 요인들의 중요도가 다른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집단의 정보시스템 관리 이슈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았다. 이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들은 정보시스템 계획, 사용자/교육, 정보기술 활용, 네트워크 활용 등에 관한 요인에서 그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분산처리에 관한 정보시스템 이슈는 다른 전략에 비해 원가

<표 10> 규모(종업원 수)에 따른 IS이슈 요인들의 차이 검증

T이슈	1000명 이하 (n=39)	1000-3000명 (n=33)	3000명 이상 (n=32)	F-Value (Sig.)
ISPLAN	5.32	5.74	5.61	2.84 (0.0633)
Duncan+	2	3	1	
USERED	5.16	5.56	5.26	1.93 (0.1500)
Duncan	2	3	1	
ITUSE	4.76	5.36	5.16	3.28 (0.0419) *
Duncan	2	3	1	
DECENT	4.87	5.01	5.02	0.25 (0.7812)
Duncan	3	2	1	
NETWORK	4.77	5.27	5.28	3.74 (0.0271) *
Duncan	3	2	1	

* P < 0.05, Pillai's Trace F=1.4431 (P=0.1638)

+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 (alpha=0.05)

우위전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타 전략에 비해 조직 내부적인 관리체계의 향상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려는 조직 전략과 맞아 떨어지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차별화전략에서는 타 전략에 대해 정보시스템

기획과 사용자/교육에 관련된 요인에 있어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집중화전략에서는 정보기술 활용과 네트워크 활용에 관련된 요인에 있어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조직 전략에 따른 주요관리이슈의 선택에 있

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값에 의한 집단간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정보시스템 기획, 사용자/교육, 그리고 정보기술 활용 등에 관한 요인에 있어서는 전략유형에 따라 유의한 수준에서의 집단간 차

이가 없었다. 그러나, 분산처리에 있어서는 원가우위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조직과 차별화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조직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리고, 네트워크 활용에 관한 요

<표 11> 전략에 따른 IS이슈 요인들의 차이 검증

IT이슈	원가우위 (n=6)	차별화 (n=17)	집중화 (n=23)	복합전략 (n=48)	F-Value (Sig.)
ISPLAN	5.33	5.34	5.33	5.78	2.70 (0.0502)
Duncan+	4	2	1	3	
USERED	5.07	5.27	5.22	5.43	0.54 (0.6577)
Duncan	4	2	3	1	
ITUSE	4.63	4.91	4.97	5.37	1.78 (0.1572)
Duncan	4	3	2	1	
DECENT	5.50	4.75	4.84	5.06	1.41 (0.2457)
Duncan	1	4	3	2	
NETWORK	4.43	4.69	5.16	5.27	2.77 (0.0462) *
Duncan	4	3	2	1	

* $P < 0.05$, Pillai's Trace $F=1.7137$ ($P=0.0483$)

+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 ($\alpha=0.05$)

인에 있어서는 복합전략, 집중화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조직과 원가우위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조직간에는 유의한 수준($P < 0.05$)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의 전략에 따라 정보시스템 관리 이슈의 선택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특히, 네트워크 활용 등에 관한 정보시스템 이슈는 조직의 전략에 따라 이슈의 중요도가 명확히 차이나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 결과는 곧, 조직의 전략이 복합적이고 집중화전략을 채택할 경우, 원가우위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조직]에 비해 네트워크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8. 응용업무에 따른 IS 주요관리이슈에 관한 가설(H4) 검증

기업의 기능특성은 본 연구에서 정의한 가치사슬(value chain)의 9가지 활동 중에서 정보시스템이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9가지의 활동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5가지의 주요관리 이슈 요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개의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에 대하여 9개의 기능특성에 의해 유의한 수준($P < 0.05$)에서 영향을 받는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들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각 활동별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관리이슈를 살펴보면, 물류산출활동을 지원하는 경우에 업무재설계, 다운사이징,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개발 및 이행에 관련된 이슈가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마케팅 및 판매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복구 및 백업체제의 구축이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인적자원관리활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도입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 하부구조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표준화, 조직의 정보기술 학습 및 사용 촉진이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개발 및 이행에 관한 이슈는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하부구조 활동의 지원에 있어 표준화나 정보기술에 대한 교육적 효과는 정(正)의 관계를 가지지만, 하부구조활동에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도입됨으로써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부(否)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생산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이슈에 있어서는 정보보안 및 통제, 인공지능과 전문가시스템의 도입, 외부 통신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활용, 멀티미디어기술의 활용 등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대상이 되는 정보기술 이슈들이 첨단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함이 없이 무분별하게 도입됨으로써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12〉 응용업무특성의 영향을 받는 주요 관리 이슈

요인	주요관리이슈	F값	유의수준	비고*
생 산 활 동	정보 보안과 통제의 향상.	7.32	0.0080	-
	인공지능 및 전문가시스템의 도입	5.44	0.0217	-
	외부 통신망의 활용	5.12	0.0258	-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효과적 사용	4.50	0.0363	-
	멀티미디어 기술의 활용	4.12	0.0449	-
물류산출활동	업무재설계	5.32	0.0231	+
	다운사이징 또는 라이트사이징	5.27	0.0238	+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개발과 이행	4.39	0.0386	+
마 케 팅 및 판 매 활 동	시스템 복구 및 백업체제 구축	4.83	0.0303	+
인 적 자 원 관 리 활 동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도입	6.69	0.0111	+
기업하부구조 활 동	업무의 표준화	7.97	0.0057	+
	조직의 정보기술 학습 및 사용촉진	6.97	0.0096	+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개발과 이행	4.06	0.00465	-

* 비고란이 '-'인 경우는 음의 상관관계, '+'인 경우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VI. 결 론

본 연구는 지금까지 단순한 순위 비교에 그친 많은 국내외의 연구와는 달리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왜 특정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는지에 착안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시스템 실무자들에게 주요 관리 이슈의 선택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Watson의 연구모델[1990]을 수정하여 채택하였으며,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의 선택과 관련된 조직적 상황요인을 선정하고 이

들 요인이 주요관리이슈의 선택에 어떤 관계를 가지며, 어떤 요인에 대하여 중요도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먼저, 정보시스템 주요 관리 이슈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업의 업종, 규모, 전략, 그리고 응용업무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정보시스템의 주요관리이슈로 기존의 국내외 연구를 이용하여 30개를 선정하였으며,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상황적인 특성에 따라 어떤 주요관리이슈가 선정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설문의 기본적인 분석으로, 국내 정보시스템 관리자를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에 대한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정보시스템의 전략적 계획수립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시스템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효과적 사용, 업무의 표준화, 통신시스템의 계획과 실행 등이 중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에 대한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분산분석, 단칸의 다중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VARIMAX에 의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의 결과로, 7개 요인이 분류되었다. 7개의 요인은 정보시스템 계획, 사용자/교육, 데이터베이스, 정보기술의 활용, 시스템 관리, 분산처리기술, 통신망 활용 등이다. 이 요인들에 대해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 관리에 관한 정보기술관리 요인을 제외한 5개의 정보기술관리 요인에 대해 만족할만한 신뢰도를 보였다. 또한,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요인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매우 유의한 수준에서 요인들간에 정(正)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조직적 특성인 업종, 규모, 전략, 그리고 응용업무 등 상황적인 변수에 따른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 선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집단간의 차이를 고려한 네 가지의 가설을 설정하여 5개의 정보기술관리 요인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였다.

업종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이슈 선택의 차

이에 대한 분석 결과, 금융업에서는 정보기술 활용, 분산처리, 그리고 통신망의 활용 등의 요인에 대해서 타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제조업에서는 사용자/교육에 관한 요인이 타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건설업에서는 정보시스템 계획에 관한 요인이 타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평균값에 의한 차이 검증을 수행한 결과, 업종간에는 정보시스템의 주요관리 이슈들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규모에 따른 관리이슈 선택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사용자/교육과 분산처리에 관한 요인들에 대해서는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지만, 정보시스템 기획과 정보기술의 활용에 관한 요인에 대해서는 규모가 커질수록 중요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네트워크 활용에 관한 요인에 대해서는 작은 규모의 조직과 큰 규모의 조직간에 유의한 수준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 결과는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정보시스템의 기획이나 정보기술의 활용 그리고 네트워크 활용 등에 관한 정보기술 요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직 전략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슈 선택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정보시스템 기획, 사용자/교육, 그리고 정보기술 활용 등에 관한 요인에 있어서는 전략유형에 따라 유의한 수준에서의 전략유형간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네트워크 활용에 관한 요인에 있어서는 복합전략, 집중화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조직과 원가우위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조직간에는 유의한 수준에서

전략유형에 따라 요인 선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조직의 전략이 집중화전략을 채택하거나 복합적인 전략을 추진할 경우, 원가우위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조직에 비해 네트워크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조직의 정보시스템의 응용업무 활동에 따라 주요관리이슈의 선택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Porter[1985]가 제시한 가치연쇄활동을 중심으로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의 선택에 대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물류산출활동에 대해서는 업무재설계, 다운사이징,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개발 및 이행에 관련된 이슈가 긍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마케팅 및 판매활동에 대해서는 시스템 복구 및 백업체제의 구축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적자원관리활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도입이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기업 하부구조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표준화, 조직의 정보기술 학습 및 사용 촉진이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생산활동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및 통제, 인공지능과 전문가시스템의 도입, 외부 통신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활용, 멀티미디어기술의 활용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의 특성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없이 무분별하게 정보기술이 도입되어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기업의 정보시스템 부서에 소속된 정보시스템 관리자나 실무자들

에게 향후 2-3년내에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관리이슈에 있어 선택기준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조직의 상황적인 특성에 따라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네 가지의 조직적 특성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주요관리이슈 선택에 대한 상황적인 실증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 관리에 관한 요인의 신뢰도가 낮음으로써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하여, 향후의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여 조직적 특성에 대한 상황적인 실증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석수준에 따라서는 정보시스템 주요관리이슈를 선택하는 기업의 상황과 이유에 대해 설명력을 가지는 인과모형(causal model)의 연구가 향후 연구에서 수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김인수, 거시조직이론, 무역경영사, 1991.

서길수, "우리나라 금융기관 정보시스템 관리에 있어서 핵심과제분야의 파악을 위한 연구", 경영정보학연구, 제 2권 제 2호, 1992년 12월. pp. 55-69.

이재광, "정보시스템의 주요 관리 이슈에 관한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무역대학원, 1993.

임선규, "정보시스템의 주요사항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1993.

정인근, 류지선, "정보시스템의 주요관리대상에 관한 연구", 경영정보학연구, 제 1권 제 2호, 1991년 12월, pp. 37-56.

채서일, 사회과학조사방법론, 법문사, 1990.

한경수, "정보시스템계획의 주요 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1992.

홍은석, "정보시스템 관리상의 주요과제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1993.

Benjamin, R. I. Dickinson, C. and Rockart, J. F. "The Changing Role of Corporate Information Systems Officer," *MIS Quarterly* (9:3), September 1985, pp.177-188.

Brancheau, J. C. and Wetherbe, J. C. and "Key Issues in 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 *MIS Quarterly* (11:1), March 1987, pp.23-45.

Cash, J.I., F.W. McFarlan, and J.L. McKenney, *Corporate 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 : Text and Cases*, Irwin, Homewood, IL, 1992.

Daft, R.L. and R.H. Lengel, "Organizational Information Requirements, Media Richness and Structural Design", *Management Science*, Vol.32, 1986.

Delone, W.H., "Determinants of Success for Computer Usage in Small Business," *MIS Quarterly*, Vol. 5, No. 4, December, 1981, pp.65-77.

Dickson, G. W., Leitheiser, R. L., Wetherbe, J. C. and Nechis, M. "Key Information Systems Issues for the 1980's", *MIS Quarterly* (8:3), September 1984, pp.135-159.

Eindor, P. and E. Segev, "Organizational Context and MIS Structure : Some Empirical Evidence", *MIS Quarterly*, Vol.6, No.3, 1982, pp.55-68.

Galbraith, J.R., *Designing Complex Organizations*, Reading, Addison-Wesley, 1973.

Gremillion, L., "Organization Size and Information Systems use : An Empirical Study", *Journal*

of *MIS*, Vol.1, No.2, Fall, 1984, pp.18-44.

Hartog, C. & Herbert, M., "1985 Opinion Survey of MIS Managers : Key Issues", *MIS Quarterly*, December, 1986.

Ives, B. and G.P. Learmonth, "The Information Systems as a Competitive Weapon",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 27, No 12, 1984, pp.1193-1201.

Jarvenpaa, S.L. and Ives, B.,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rporate Strategy : A View from the Top",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1, No. 4, 1990, pp.351-375.

Lehman, J.A., "Organization Size and Information Systems Sophistication",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Vol.2, No.3, Winter, 1985-1986, pp.78-86.

Martin, J., *Information Engineering*, Book I-Introduction, Prentice Hall, 1989.

McFarlan, F. W. McKenney, J. L., and Pyburn, P. *Corporate Information System Management : The Issues Facing Senior Executives*, Homewood, IL Richard D. Irwin. 1983.

Miller, D. and Toulouse, J. "Chief Executive Personality and Corporate Strategy and Structure in Small Firms". *Management Science* (32:11), November 1986, pp.1389-1409.

Niederman F., Brancheau, J. C. and Wetherbe, J. C., "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 Issues for 1990's", *MIS Quarterly*, Dec 1991.

Nolan, R. L. : "Managing the crisis in data processing.", *Harvard Business Review*, March-April, 1979, pp115-126.

Porter, Michael E., *Competitive Advantage : Creating and Sustaining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 Free Press, 1985.

Raymond, L., "Organizational Context and Information Systems Success : A Contingency Approach",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Vol. 6, No.4, 1990, pp.5-20.

Reich, B.H. and I. Benbasat,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Factors influencing The Success of Customer-oriented Strategic System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1, No.3, 1990, pp.325-347.

Rockart, J. F. "The Changing Role of the Information Systems Executive : A Critical Success Factors Perspective", *Sloan Management Review*, fall, 1982.

Tushman, M.L. and Nadler, D.A., "Information Processing as an Integration Concept in Organization Desig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3, 1978, pp.613-623.

Watson, R. T. "Influence on the manager's Perspectives of the Key Issues : Information Scanning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CEO", *MIS Quarterly*, June, 1990.

Watson, R. T. and Brancheau, J. C. "Key Issues in 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Information & Management*, (20:3), March, 1991, pp.213-223.

◇ 저자소개 ◇



공동저자 한재민은 '81년 고려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88년 미국 University of Iowa에서 경영정보학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취득이후 귀국하여 RIST 경영경제연구소 경영전략연구실에서 주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정보기술의 전략적 활용, MIS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였으며, '91년부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으로 옮겨 MIS와 인공지능분야를 가르치고 있다. 그의 주요 관심분야는 인공지능의 기업활용, 전문가시스템의 설계와 개발, 정보기술의 전략적 활용 등이다.



공동저자 문태수는 '86년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88년 동대학 경영정보대학원에서 MIS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서 MIS전공으로 박사 논문을 제출중이다. '87년부터 '93년까지 RIST 경영경제연구소에서 주임연구원으로 재직하였으며, MIS 계획수립 및 방법론 개발, 통합데이터베이스의 설계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그의 주요 관심분야는 정보시스템의 평가, MIS 계획수립 및 설계, 조직에서의 정보시스템 전략 등이다.



공동저자 박희찬은 '89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95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에서 MIS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는 군복무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보시스템의 평가, 정보자원관리, 정보기술의 전략적 활용 등이다.